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학년 | 반 | 번 | 이름: 문경민 |

소감문(사진첨부 가능)



우리고장 영광 탐방을 하고 느낌

오늘은 학교에서 영광탐방 체험학습을 가였다. 버스를 타고 첫번째로 갔 곳은 불갑사이다. 불갑사 입구에 도착해서 해설자 냥에 말을 들어다. 첫번째 노개한 것은 삼사화이다. 삼사화의 종류는 7가지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절에 가서 야단법석이라는 둘이 부었인지 배우고 불갑사 지수지에 가였다. 올라갈때는 올라가기 싫었는데 올라가고 지수지를 보니까 올라오기 할래라고 생각 했으나 지수지를 봄고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내산서원에 가였다. 내산서원에 나갈줄 안있는데 안내리고 그냥 설명만 듣고 바로 불교도라지에 가였다. 걸어서 간다라 박물관에 도착하였다. 간다라 박물관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구경하다 나와서 버스타고 미르목장에 가였다. 미르 목장에 도착 했는데 미르목장까지 걸이 가았는데 너무 멀어서 짚고 땅이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미르목장에 도착했는데 방역 노동자 1박스만에 6명이 들어 갔었는데 30초동안 너무 답웠다. 박스를 나와서 이제 밥을 먹으려 들어 가고 밥을 먹고 치즈를 만들었다. 치즈을 만지니라 느낌이 이상하기 때문이다.